성시신문 Magazine

Chuncheon Holy City Movement

246
Summer 2022

성시화 인물

풀뿌리 하나님나라 운동

기획연재

외국인들이 말한 "조선사람은 매우 게으르다"를 반박한 무스 선교사②

2022년 대변혁의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이야기②

문화에 빠지다

맛 기행 아침밥으로 몸을 깨우자!

영화이야기 타이 페이의 눈

명화감상 김복동 「구원」

책속의 책 선하고 아름다운 삶

하나님 앞에서 울다 | 하나님을 만나는 글쓰기

건강 여름 매실차



창간1998
춘천성시화운동본부
Chuncheon Holy City Movement

Contents

Chuncheon Holy City Movement

인물인터뷰 | 성시화

04 풀뿌리 하나님나라 운동 | 박인관 목사

기획연재

07 외국인들이 말한 "조선사람은 매우 게으르다"를 반박한 선교사② | 김동정 장로

09 2022년 대변혁의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이야기② | 조용호 박사

문화 | 영화 | 책 FOOD MOVIE BOOK

13 맛 기행(예수의 미소 시즌②) | 아침밥으로 몸을 깨우자! 이관형 권사

14 영화이야기 | 타미 페이의 눈 The Eyes of Tammy Faye 김춘배 화백

16 명화감상 | 김복동

17 책속의 책 | 정숙현 전도사

19 건강 여름매실차 | 이시형 원장



춘천성시화운동후원하기

후원 참여

신협 131-005-937566(춘천성시화운동)

춘천성시화운동본부 QR코드 후원참여에 들어가시면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성시화
Chuncheon Holy City
Movement

풀뿌리 하나님나라 운동

박인관 목사
(춘천광염교회 담임. 춘천성시화운동본부 증경이사장)



올해는 춘천성시화운동이 일어난 지 50년이 되는 해이다. 1972년 여름, 춘천의 교회들(위원장/김연호목사. 춘천중앙감리교회)과 한국대 학생선교회(CCC. 총재 김준곤목사)등 유수한 기독교단체들의 총연합으로 시작된 춘천성시화운동이 올해로 의미 있는 희년을 맞았다. 젊은 날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은 마음으로 춘천 성시화운동을 이끌어 오고 헌신한 본 회 증경 이사장 박인관 목사(광염교회 담임)를 만나 그 소감을 들어본다.

안녕하세요. 의미 있는 시간을 내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춘천성시화 운동과의 만남, 소회를 부탁드립니다.

사실 저에게 있어서 「성시화」는 제 삶과도 같습니다. 저희 연령대는 고등학생 시절에도 연합활동이 아주 활발했는데 그때 이미 중앙감리교회 김연호 목사님, 중앙성결교회의 김관수 목사님으로부터 고1부터 춘천성시화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춘천성시화를 공식적으로 시작하는 1972년 춘천에서 열린 민족복음화 대 집회 시 제가 회장으로 섬기던 춘천기독학생연합회 임원 24명이 체육관 집회의 정문 안내를 맡기도 했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춘천에서 목회를 시작할 때가 1985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송암동 야구장이 있는 동네에서 목회를 시작했기 때문에 1972년 이후 어떻게 성시화가 자리를 잡고 발전했는지는 자세히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목회를 시작하면서 성시화는 당연히 아주 당연히 해야만 하는 과제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성시화와 연결이 되고, 성시화에 대한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또한 신학적으로도 어거스틴이 말하는 「하나님의 도성」이 성시화에서 추구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시화는 지역을 넘어서서 목회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모든 목회자와 성도 곧 교회가 추구해야 할 가장 목회의 기본적인 과제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왜 성시화와 연합에 많은 목회자들이 관심이 없고 협력을 안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자기주의, 이기주의의 영향이 내 목회, 내 교회만 돌아보게 하는 원인이 아닐까 조심스레 분석해 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통하여 전 세계가 다 하나님의 나라로 발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도 사역의 시작이 하나님의 나라이며 사역 내용 그 자체가 세상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고 가르치기도 하셨고, 제자들에게 어느 마을에 가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 마지막 설교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셨을 뿐 아니라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과 40일 동안

함께 계시면서 하신 말씀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목회와 신앙생활의 목표와 내용이 하나님의 나라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겠다는 것이 성시화운동이라면 마땅히 목회자와 성도들의 제1의 관심사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다른 분들은 모르겠으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앞으로 춘천 성시화 운동이 어떤 방향으로 더 발전해야 할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성시화는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하겠는가? 저는 이것에 대하여 "풀뿌리 하나님의 나라 운동"이 전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민주주의가 꽃피려면 정치가들이 민주주의를 노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 시민들의 삶의 현장, 삶의 내용이 민주주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즉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서 빛과 소금의 삶, 향기가 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교회는 커 가면 커 갈수록 욕도 많이 먹고 삶도 그렇게 인정받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삶의 자리 곧 이웃과 직장, 선후배를 비롯한 크리스천들의 활동 영역 전체가 크리스천다운 그리스도의 사랑과 마음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과는 별개로 모든 크리스천이 개 교회를 넘어서서 은사를 재배치하고 네트워킹하는 운동이 일어나야 한다고 믿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존재 이유가 있고 사명과 은사가 있습니다. 이 사명과 은사는 교회 내에서는 물론이고 거리에 나와 직장과 이웃들 관계에서 그 은사와 사명을 사용하여야 된다고 믿습니다. 가령 그 은사와 관심이 청소년이든 거리청소든 환경이나 음악과 미



술과 같은 예술이나 문화 분야든 상관없이 은사 중심으로 직장과 이웃을 타겟으로 활동의 초점을 모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과 함께 하는 삶의 현장에서 은사를 사용하도록 교회의 목회자들은 이를 가르치고 밖으로 보내는 "보내는 교회"가 되어야 하고 성시화는 이를 분야별로 조직하고 격려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이 네트워크는 시와 도까지 연결되어 모든 영역에서 크리스천들의 구체적인 사역이 교회 밖 삶의 현장에서 활발하게 평일에 이루어짐으로 진정한 성시화가 동네, 마을 마을 마다 이루어질 때 비로소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올해 성시화 50주년 희년 대성회(again 1972)를 8.15 전후로 계획하고 있는데, 거는 기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50주년을 맞는 「춘천성시화」는 대단히 중요한 시점에 와 있다고 믿습니다. 그동안 춘천성시화의 성시화, 하나님나라 운동이 각 도시로 그리고 전 세계로 번져 나갔지만, 구체적인 하나님 나라 건설 즉 성도들의 밑바닥 삶의 현장에서부터 성시화가 이루어지는 실질적인 성시화에 대한 요청이 그 어느 때 보다 절실히 요청되는 때이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를 2년 동안 거치면서 교회의 위상이 떨어졌는데 이는 더욱더 교회와 성시화의 하나님나라 운동에 역점을 기하여야 한다는 강력한 요청으로 받아 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큰 행사도 잘 치러야 하겠지만 춘천의 교회들을 일깨우고 성시화에 참여토록 하는 데 역점을 모으고 이제부터는 실질적인 성시화운동의 모델을 춘천이 제시하고 보여주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번 창립 50주년이 그런 실질적인 성시화의 재출발점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취재 : 최상도 목사(춘천 사암교회) –



외국인들이 말한 “조선 사람은 매우 게으르다” 를 반박한 무스 선교사-②

김동정 장로(신성교회, 가톨릭관동대 역사교육과 교수)


자전거 고치는 무스 목사

1899년에 미국 남감리교 선교사로 조선에 들어온 제이콥 로버트 무스(Jacob Robert Moose, 한국명 무야곱, 1864~1928)는 1924년에 미국으로 돌아갈 때까지 약 25년 동안 조선의 시골에서 선교 사역을 담당했던, 한국인 같은 외국인이었다. 그는 특히 강원지방 개척 선교사로서 춘천을 거점으로 원주, 홍천, 양구, 철원 등에 여러 교회를 세우고, 자전거를 타고 조선 전역을 누비며 선교했다. 그는 조선에서 생활 한 지 10여 년이 지난 시기에 시골 체험기를 남겼다.

1899년에 미국 남감리교 선교사로 조선에 들어온 제이콥 로버트 무스(Jacob Robert Moose, 한국명 무야곱, 1864~1928)는 1924년에 미국으로 돌아갈 때까지 약 25년 동안 조선의 시골에서 선교 사역을 담당했던, 한국인 같은 외국인이었다. 그는 특히 강원지방 개척 선교사로서 춘천을 거점으로 원주, 홍천, 양구, 철원 등에 여러 교회를 세우고, 자전거를 타고 조선 전역을 누비며 선교했다. 그는 조선에서 생활을 한 지 10여 년이 지난 시기에 시골 체험기를 남겼다.

1909년에 춘천에서 책의 머리말을 썼고, 1911년에 미국에서 출판되었다. 원제 「Village Life in Korea」에서도 알 수 있듯이, 무스는 그 책에서 서울 이외 지역을 모두 시골로 여기던 당시 조선 사회에서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시골 사람들에 깊은 애정을 갖고 그들과 함께 살면서 시골 사람들의 삶과 애환을 집중 조명했다. 그의 시골 생활담은 주로 강원도 지역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선교활동 체험담이어서 1900년 전후 강원도 민속학 보고서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다.

무스 목사는 한국인과 함께 농촌에서 농부들과 동고동락한 외국인이었다. 당시 외국인들이 한국을 찾아와선 “조선 사람은 매우 게으르다”고 반복해 말하곤 했는데, 이것은 완전한 오해이고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의 한국생활 체험기에는 당시 외국인들이 여행자로서 갖고 있었던 오해와 진실에 관한 생생한 증언이 다수 실려 있다. 그는 저서[번역본 : 제이콥 로버트 무스, 문무홍 외 역, 「1900, 조선에 살다」, 푸른역사, 2008]에서 당시 조선 사람들의 삶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이 나라를 방문한 사람들은 “조선 사람은 매우 게으르다.”고 반복한다. 나는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되풀이해 말하고 싶다. 이러한 인상은 분명히 이 나라에 단지 몇 주 동안, 그것도 대부분 개항장 근처에서 머문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얘기다. 똑같은 사람을 데려와 나와 함께 몇 년 동안 농부들 사이에 살면서, 겉으로 드러난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들이 처해 있는 상황을 살펴본다면 내가 진실을 이야기한다는 데 동의할 것 이라고 확신한다.


평상복 차림의 성인들 모습



김치 담그는 모습

전 세계를 일주하는 관광객이 서울에 오게 되면, 9시경에 일어나 아침식사를 든 후 도시를 구경하기 위해 나선다. 그는 세상이 조용하다는 것을 발견한다. 자신의 고국에서 늘 보아온 광경과 비교할 때 조용한 것이 아니라 사실상 전혀 활기가 없다고 해야 할 것이다. 거리에는 사람이 많지 않으며, 있는 사람들도 하루 종일 걸어봐야 다음 길모퉁이에나 갈 정도로 게으름을 피우고 있다. 그래서 그는 조선 사람들이 매우 게으르다고 결론을 내리는 것이다.

그러나 아침 4시에 일어나 나가본다면, 바로 저 졸고 있는 듯이 보이는 거리가 물건을 사고파는 사람들로 엄청나게 붐비고 있는 것을 발견할 것이다. 또한, 9시경에 탈것을 타고 수 킬로미터 밖으로 나가 보면, 먼 지방에서 도시로 와서 자신의 생산품을 팔고 벌써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 남자들과 아이들로 길가가 부산한 모습을 발견할 것이다.

시골 농부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 식사를 한 후 일하러 나간다. 9시경에 아내가 들판으로 '새참'을 들고나오면, 농부는 이를 먹고 담배를 피운 후 잠시 누워 낮잠을 잔다. 바로 그러할 때 관광객이 그를 보고서는 자신이 늦잠을 자는 동안 농부가 일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모른 채 농부가 매우 "게으르다!"고 비난하는 것이다. 정오에 농부는 집에 돌아가 밥과 김치로 차린 든든한 점심을 먹고 다시 짧은 낮잠을 즐긴다. 농부는 다시 들판으로 돌아가 일하다가 오전과 비슷한 오후 '새참'을 들고 한참 담배를 피운 후 일을 시작하여 마음 내킬 때까지 일을 계속하는 것이다.

위의 글에서 무스는 특히 농부들의 부지런한 삶에 대하여 자세히 실제적으로 기술했다. 지금 우리가 어릴 때나 젊었을 때 겪었던 그대로의 사실이어서 대수롭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조선 사람들은 게으르다'는 선입견 내지 잘못된 인식을 바로 잡는 데는 큰 도움이 되었음은 틀림없다고 생각된다.

사실, 이것뿐이겠는가? 새벽 4시에 드리는 새벽예배, 일과를 마치고 저녁 8시가 넘어 드리는 저녁예배, 다음날까지 드리는 철야예배 등은 조선인들이 얼마나 부지런한지를 보여주는 작은 일례에 불과한 것이었다.

무스 선교사의 눈에 비친 조선의 대지는 아름답고 풍요한 어머니상이며, 조선의 백성은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희망의 아들과 딸들로 여겨지지만, 조선을 삼키려는 일본의 야욕에 가증스러움을 느끼고 있었다. 무스 선교사는 조선의 시골 마을을 기적의 요람으로 삼고 그들에게 따뜻한 복음을 전파했다. 무스 부인 역시 남편이 선교활동을 하면 뒤에서 조선의 지역민들의 성직자로 봉사하기도 했다. 특히 강원도 속의 춘천과 홍천, 양구, 인제, 철원 등 주변 지역의 백성들을 위해!



월천교회의 예배 후 기념하는 성도들

2022년 대변혁의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이야기 2

조용호 박사(춘천성시연구소장)

History in the making. 주님의 역사는 지금도 만들어져가고 있다. 선거가 끝나고 정권을 잡은 정당은 역사를 내 것으로 생각하고, 진 정당은 역사의 문이 닫혔다고 생각할지 모르고, 사업을 그만두거나 퇴직한 사람은 인생의 커튼이 내려졌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주님은 역사의 주인으로 지금 2022년 6월에도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의 초점은 이기고 지는 선거가 아니라 늘 주님이어야 한다. 그러면 주님이 열어놓으신 길이 보이지 않을까.

19세기 이땅을 밟은 선교사들은 복음전도의 길을 어디에서 찾았을까. 교회를 세우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 당시 사람들이 가장 필요로 하던 근대교육의 터전인 학교를 세우고 질병을 치료하는 병원을 세웠다. 근대 교육과 의료가 주님이 열어놓은 길이었던 것이다.

1960년대와 70년대, 미국의 젊은이는 기존 질서에 저항하여 히피족이 되었다. 그들은 교회보다는 들판에서 바닷가에서 산에서 집단생활하며 그들만의 자유로운 복장을 하고 공동체를 만들어갔다. 교회의 문은 열려있으나 넥타이 매기를 거부하는 그들에게는 닫힌 문이었다. 이때, 캘리포니아에 사는 한 목사님이 그들이 사는 태평양 해변으로 들어갔다. 처음에는 해변가에 교회를 세우고 양복을 단정히 입고 그들을 맞이하였다. 히피족들은 힐끗 보고는 나가버렸다. 그 목사님은 양복을 벗어버리고 해변에 어울리는 비치복을 입고 천막교회를 열었다. 예배를 드릴 때에도 상반신을 드러내고 성경책을 폈다. 히피들이 하나둘씩 찾아오기 시작했다. 이렇게 시작한 교회가 미국 서부지역에 널리 퍼진 Calvory Chapel이고 그 목사님이 할아버지가 옛날이야기를 들려주듯 설교하는 Chuck Smith이다.

코로나가 끝났으나 젊은 청년세대는 교회 복귀가 80퍼센트 수준에 머문다고 한다. 코로나 유산이라는 것은 어쩌면 핑계인지 모른다. 젊은 세대는 새로운 교회를 찾는지 모르겠다. 하나님을 찾는 것은 인류의 속성이고 대 질환이 오고 나면 인류는 더 하나님을 찾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신앙생활의 무대를 교회에서 삶의 현장으로 옮기는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교회의 필요를 채우는 것을 신앙생활로 보는 구세대의 모습에 젊은 세대는 손을 흔드는 것이다. 교회에서의 거룩함이 생활로 이어지고 하나님에 대한 열심히 일에 대한 집중으로 이어져야 하는데, 교회에서는 핵인싸인데 사회에서는 외톨이 교인, 직장에서 다른 사람 일하는데 교회주보를 만들고 있는 인자한 장로님, 승진이나 이익에는 누구보다 빠른 권사님, 같은 교회 교인이라면 은근히 편드는 집사님이 교회의 모습이라면 이러한 '그들만의 리그' 에 참여하고 싶지 않을 것이다.

몇 사람을 소개하고 싶다. 유명애 권사님. 그분은 화가로 6대째 크리스천 집안이다. 어머니 박정희씨는 한국 미술사에 나오는 최초 여류화가이기도 하다. 서울에서 금병산 자락 실레마을로 이주하여 틈틈이 작은 정원을 꾸미고 전국에서 온 마음이 상한 사람에게 그림을 가르치며 삶으로 복음 전하고 그림으로 상한 마음을 치유하는 공동체를 운영하고 계신다. 얼마 전 미국에서 오랫동안 가슴앓이 하던 사람에게 그림을 배우게 하더니 개인전시회를 갖게 하였으며 그 사람의 가슴앓이는 사라졌다. 권사님은 파킨슨병으로 고생하시는 남편을 즐겁게 돌보고 계신다. 찾아오는 사람도 크리스천보다 일반 사람이 더 많다.

박문영 작가. 사람들은 그를 장로님이나 집사님으로 부르지 않고 선생님으로 부른다. 중학교 시절 교회에서 만난 아내와 70세가 다된 지금까지도 알콩달콩 살고 계신다. 오랜 그리스도인으로 알고 있기에 필자가 처음 그분을 만나 호칭을 물으니 작가라고 부르라 한다. 그는 한국을 빛낸 위인 100인, 독도는 우리땅과 같은 주옥같은 동요를 작사작곡하셨다. 논두렁밭두렁 멤버이기도 하셨던 이 작가님이 동요운동을 시작하겠다고 하자 지인이 얼마 전 서면 방동리 한백겸 고택에 사람을 초대하였다. 그분의 삶을 알아서인지 모인 사람 대다수는 그리스도인이었다. 우리는 찬양하듯 섬그늘, 고향의 봄, 엄마야 누나야를 즐겁게 부르고 교제하였다. 모인 사람 중에는 PLZ(Peace Life Zone, 철원, 양구, 고성 등 분단지역의 음악연주회 활동)를 기획하신 분도 계셨다.



19세기가 교육과 병원으로 복음의 문을 열던 시대라면 21세기는 그 분야가 확대되고 있다. 사람들이 교회로 오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사회 각 분야에서 복음의 문을 열어야 한다. 주님께서 복음의 현장인 역사 속으로 인간의 몸으로 오셨듯 주님이 내게 주신 재능과 경력을 각자의 전문분야에서 한 손엔 복음을 들고 다른 한 손에는 사랑을 들고 찾아가는 것, 이것이 21세기의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우리 주변에 기후위기에 먼저 반응하여 신에너지로 건물을 바꾸고 전기차를 앞장서 타고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이 늘어나고 있다. 어떤 정치상황이어도 북한 주민과 접촉점을 가지고 교류하는 목사님, 돈이 아니라 사랑으로 복지계층을 돌보는 장로님, 첨단기술을 연구하고 보급하는 과학자 집사님, 그리스도의 향기를 삶으로 전하는 문화예술, 관광사업을 하는 성도들. 그리스도인의 손길을 기다리는 분야는 많다. 비리와 부조리로 얽힌 도시재생과 도시재건축, 낡고 오랜 관행이 지배하는 행정... 복음은 이 삶의 현장에서 전해지는 것이다. 그 분들에게 존경을 보낸다.

춘천성시연구소에서는 전문분야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분들과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HP.010-8715-8560(조용호)



SUMMER

FACE FLOW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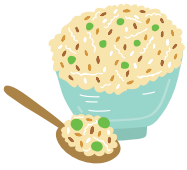
아침밥으로 몸을 깨우자!

이관형 권사(춘천 한길교회)

식구(食口)란 한집에 같이 살며 끼니를 함께하는 사람을 뜻한다.

하지만 요즘처럼 맞벌이 가정이 많은 상황에서 하루 30분 이상 대화가 없는 식구가 50%가 넘는다고 한다. 이처럼 안타까운 현실에서 아침 식탁에서만이라도 식구란 이름의 가족들이 전부 모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더군다나 자라나는 어린 자녀들과 둘러앉은 식탁은 한 가족의 소중하고 귀한 가족사인 만큼 밥상을 차릴 때는 다음과 같은 부탁을 드린다.

1. 사자머리를 한 채 밥상을 차리지 말자.
자다 일어난 부스스한 모습으로 음식을 조리하지 말자.



2. 락앤락 밥상을 차리지 말자.
번거롭더라도 보기 좋게 반찬 그릇을 이용하는 정성을 보이자.

3. 어린 자녀에게 사료를 주지 말자.
애완동물에게나 주는 사료(시리얼)를 우유에 말아서 주지 말자.

4. 가족이라도 찌개를 떠먹을 때는 앞 접시를 사용하자.
찌개 그릇에 여러 사람의 숟가락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은 情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요즘같이 코로나를 겪은 세상에는 침(질병)을 나누는 것이다.

얼마 전 TV에서 불혹의 나이를 훨씬 넘어 아기를 갖게 된 주부에게 그 비결을 물었다. 이에 대답하기를, 아침 식사를 꾸준히 한 결과라고 한다. 아침 식사를 하면 뇌기능 활성과 안정으로 인해 집중력과 기억력이 향상되니 코로나 이전에 일부 학교에서는 아침 급식을 하는 곳도 있다고 한다. 그러니 아침에는 입맛이 없다, 살찐다, 바쁘다거나 등의 핑계를 대지 말고 아침 밥상을 차려서 꼭 먹기를 권한다.

(새벽예배를 다녀와서 피곤하다며 아침밥상을 차리지 않는 성도는 아마도 없을 것이다.)



끝으로 새벽기도와 함께 아침밥상은 우리 영육을 깨우는, 세상에 대한 온갖 나쁜 것에 대한 면역력을 높이는 중요한 첫 시간임을 잊지 않길 바란다.

타미 페이의 눈

The Eyes of Tammy Faye

김춘배 화백(성시신문 편집위원)



올해 개최된 제94회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에는 흥미로운 사실들이 있는데, 작년 본지에 소개한 〈미나리〉로 여우조연상을 받은 대한민국의 배우 윤여정이 올해 작품상을 받은 〈코다〉에서 청각장애인 아빠 역으로 남우조연상을 받게 된 트로이 코처에게 상을 수여하는 영예를 누렸다. 또 한 가지는 여우주연상을 받은 배우가 화제를 모았는데 필자도 처음 대하는 제시카 차스테인. 그녀에게 이 상을 안긴 작품이 기독교 영화라 일단 관심이 가지 않을 수 없었다. 〈헬프〉, 〈제로 다크 서티〉에 이어 세 번째로 여우주연상 후보에 올랐다는 제시카 차스테인은 작품마다 다른 얼굴을 선보이는 뛰어난 연기의 소유자라 한다. 배우 조합상과 크리스틱 초이스에서 여우주연상을 받았음에도 국내에서 다소 의외의 수상자로 여겨졌던 이유는 〈타미 페이의 눈〉이 국내에 소개되지 않았기 때문. 이 작품은 정식 개봉이 아닌 OTT(Over The Top: 개방된 인터넷을 통하여 방송 프로그램, 영화 등 미디어 콘텐츠를 제공하는 서비스. 예를 들어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 등)를 통해 국내에 들어오게 되었다. 말하자면 디즈니 플러스에서 개봉했다는 것이다. 정식으로 개봉하기보다는 OTT에 맞는 작품이라는데, 작품성의 문제가 아닌 소재가 종교적이기 때문이라 한다. 이 영화는 70~80년대 미국 TV 전도사였던 베이커 부부의 실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기독교 영화를 만들거나 보여주는 데는 주로 계몽성이나 홍보를 포함한 전도의 목적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이 영화는 기독교 내부의 문제, 즉 목회나 성직자들의 치부를 드러내 보이는데, 상당히 불편한 내용을 담고 있지만 도리어 반면교사로 삼을 만한 점도 없지 않다.

어릴 때 독실한 신자였지만 재혼한 엄마의 이해할 수 없는 제재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여 교회에 나가고 싶어 하던 타미는 결국 방언을 터트려 목사의 지지를 받아 신학교에 가게 되고, 거기서 짐을 만나 결혼하게 되는데 짐은 방송 전도에 목회의 뜻을 품고, 타미는 열렬한 주님 사랑에 빠져 있다고 스스로 자처하며 헌금과 세속적 성공을 추구하는 비정상적 열망을 품으며 서로 뜻이 척척 맞아 간다.

타미는 CCM 가수로 짐은 목회자로 활동하면서 인기를 얻게 된다. 초기에는 타미가 인형극을 통

해 아이들을 대상으로 큰 인기를 끌면서 두 사람은 방송에 정착한다. 이후 인기 목사 제리와의 만남을 통해 더욱 성장한 두 사람은 PTL이란 방송국의 핵심이 되는데, 이 방송에서 타미와 짐이 하는 일은 말씀을 설파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노골적으로 후원금을 요구하며 부와 인기를 쌓아가는 것이다.

짐의 역을 맡은 앤드류 가필드는 토비 맥과이어, 톰 홀랜드 등과 더불어 마블의 스파이더맨 배우로 알려졌는데, 일본의 천주교 탄압을 다룬 마틴 스콜세지 감독의 〈사일런스〉에서 극한의 고통으로 순교하는 신부 역으로도 출연한 바 있으며, 이 영화에서 개신교 목사 역으로 굉장히 상반된 이미지의 종교인으로 나오는 점이 흥미롭다.

이 영화를 통하여 기독교인의 세속적 가치관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의로우신 뜻에 역행하게 되는 위험한 인간의 본성을 신랄하게 드러내는 것을 알 수 있다. 진정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대로 예배드리고 전도하고 있는지 스스로 자문하게 되는 기회로 이 영화를 한 번 관람하면 좋겠다.

결국 파국과 타락으로 전락하게 되는 이 부부를 통하여 1950년대 이후 미국 기독교 문화의 한 단면을 고발하면서, 진정한 기독교인으로서 요구되는 신앙적 덕목의 순수성을 회복하며 사랑과 희생 및 선행의 기독교 정신을 올바로 정립하여야 함을 자복하고 온전한 순종과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드릴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김복동「구원」



유머 하하하~ 웃으며살아요~

"천국 가는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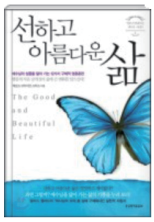
내가 만약 집과 자동차를 몽땅 팔아
교회에 헌금하면 천국 갈까요?
주일 학교 학생들에게 물었다.
*아뇨.....
라고 아이들은 모두 다 대답했다.
*그럼 교회 청소를 매일하면 천국 갈까요?
*아뇨.....
내가 동물들을 많이 사랑하고 아껴주면 천국 갈까요?
*아뇨.....
*그럼 어떡해야 천국에 갈 수 있죠?
그러자 뒤에 앉아있던 다섯 살 먹은 사내아이가 외쳤다.
"죽어야 갑니다."

책속의 책

이제 지혜롭게 코로나19와 동거 아닌 동거를 하며 영적 성숙을 위한 활로를 열어야 할 때이다. 교회 공동체에서 함께 나누며 영혼의 성장을 돕고, 누구나 피할 수 없는 상실의 고통을 통한 영혼의 성장을 도우며 글쓰기를 통하여 영혼의 성장을 돕는 세 권의 책을 소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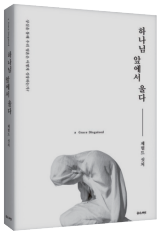
선하고 아름다운 삶 제임스 브라이언 스미스 지음 / 전병철 옮김 / 생명의 말씀사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꿈꿀 주님이 사셨던 선하고 아름다운 삶..

'영혼이 변화하는 제자도 시리즈'의 두 번째 책이다. 세상이 거짓된 가르침으로 우리의 가치관을 왜곡시켰다면 저자는 하나님 나라와 산상수훈을 가지고 그 왜곡된 가치관을 하나하나 회복시켜 예수님의 성품을 닮도록 12가지 영혼훈련법을 소개한다. 그것도 차갑지 않은 따뜻한 언어로 ...

하나님 앞에서 울다 제럴드 싯처 지음 / 신은철 옮김 / 좋은 씨앗



3대가 같은 날 사고로 숨지는 감당할 수 없는 크나큰 상실을 경험한 저자 제럴드 싯처가 그 상실의 고통에서 도망치지 않고 깊은 슬픔 안에서 하나님께 구하고, 상실을 그대로 받아들이며 살아남아있는 자녀들과 함께 극복해 나가면서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소개한다. 티끌로 만들어진 피조물인 우리에게, 상실은 우리가 유한한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해주며, 회복될 여지가 없는 재앙과도 같은 상실의 고통 가운데서도 삶이 행복하다는 사실을 믿을 때 은혜의 선물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일려준다.

하나님을 만나는 글쓰기 루시 쇼 지음 / 장택수 옮김 / 생명의 말씀사



기도도 잘 되지 않고, 영적으로 뭔가 답답하면서 삶의 의미가 분명하지 않을 때 저자는 글쓰기를 시작하라고 권한다. 이 제안은 설마??
하지만, 막상 시작을 해보면 스스로가 놀라게 된다. 우선 종이와 펜을 들자, 그리고 무엇이든 써보자, 만약 막막하다면 저자가 각각의 장마다 주제 질문을 던지며 유도하는 대로 따라 가보자. 아마 그동안 미처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는 시간이 될 것이다.



여름 매실차

이시형 원장(이시형 한의원)

바야흐로 짧은 봄을 지나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는 여름이 다가온다. 여름 더위에 상하면 갈증이 많이 나고 땀이 줄줄 흐른다. 이럴 경우에 도움이 되는 한방차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한다.

동의보감에 여름철 많이 쓰이는 처방이 인삼 맥문동 오미자로 구성된 생맥산이 있다. 이는 매스컴에서 많이 언급되었고 작년 이 칼럼에서도 언급하였다.

그 외에 "제호탕"이란 처방이 있다. 더위 먹어서 나는 열을 풀면 갈증을 멎게 하는 효능이 있는 처방이다. 약재 구성은 매실, 초과, 사인, 백단향을 가루 내어 꿀을 넣고 약간 끓인 다음 찬물에 타서 먹는다. 초과, 사인, 백단향은 구입하기 힘든 한약재이므로 매실에 꿀을 적당히 타서 약간 끓인 다음 찬물에 타서 복용하면 되겠다.

매실은 구연산이 들어있어 피로에도 좋다. 매실은 신맛이 있어 폐에 좋은 음식이다. 한방에서는 오래된 기침, 설사, 갈증을 해소해준다. 매실은 푸른 열매를 채취하여 약한 불에 쬐어 색이 노랗게 변한 것을 햇볕에 말리게 되면 검은색이 되므로 한방에서는 "오매(烏梅)"라고 불린다.

꿀은 한방에서 "봉밀(蜂蜜)"이라고 하여 비타민 B6가 많아 피부의 건조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고 몸을 윤택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 아울러 기침이나 변비에도 사용한다. 꿀은 설탕보다 흡수 효과가 좋아 속이 차고 위가 약해서 소화가 잘 안되거나 구역질이 날 때 복용하거나 술을 마신 다음 속이 울렁거릴 때도 좋다.

요즘은 매실 수확 철에 집에서 매실에 설탕을 넣어 재워 두어 매실 액기스를 담가두는 집들이 많다. 무더운 여름철찬 음료수보다는 매실액기스에 물을 타서 얼음을 넣어 시원하게 음료 대용으로 복용하면 무더운 여름을 잘 보낼 것이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춘천성시화운동을 위해 후원하신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개인

가천흥 강은주 경동현 고순덕 고순화 고정희 곽복연 곽해옥 곽 환 국주영 권경애 권양희 권여림 권영자 권용인 권혁자 권혁채
권현정 김경순 김경애 김경희 김관수 김교성 김금교 김금란 김기영 김기자 김다정 김도희 김두철 김매순 김명선 김명희 김문수
김미경 김미라 김미숙 김미향 김민섭 김보경 김복심 김복자 김상욱 김상화 김생수 김설아 김성국 김성희 김세환 김수연 김수일
김숙희 김순덕 김순옥 김순월 김순희 김영관 김영명 김영수 김영순 김영일 김영태 김영희 김예은 김옥분 김옥선 김용배 김용선
김웅기 김원중 김은아 김은희 김점자 김정미 김정숙 김정애 김정의 김정희 김종복 김종숙 김종옥 김종익 김종찬 김종희 김주봉
김주혁 김주형 김지영 김춘화 김태균 김학자 김향자 김현주 김현철 김형욱 김혜란 김화분 나정희 남궁명숙 남궁자 남준섭 남하은
노길자 노윤미 노정희 류현구 문현숙 민경원 민병순 민병임 박갑출 박건섭 박금희 박금희 박난영 박노향 박덕남 박동호 박동환
박만규 박명관 박문순 박미선 박미자 박미정 박상준 박상혁 박선옥 박소영 박소원 박숙영 박순덕 박순배 박애자 박영민 박영호
박옥화 박윤철 박은경 박은혜 박인관 박정란 박종일 박주환 박지인 박지혜 박지환 박창범 박춘자 박필상 박 현 박형덕 박혜성
박 희 박희상 방진선 배명순 배미정 배진철 배한나 배한솔 백광일 백춘학 서경숙 서묘석 서성진 서순옥 서연숙 서은아 서현애
석지찬 성숙자 성완경 성화숙 손병서 손인규 손임순 손학균 송갑수 송근영 송미화 송수정 송영인 송정심 송창근 신건호 신경자
신금호 신달호 신동경 신미연 신성균 신안섭 신영선 신옥섭 신옥자 신온수 신종길 심규향 안순연 안한나 안현주 양봉남 양재순
양혜경 어금옥 엄근혜 엄기증 엄기홍 엄혜련 여경구 연송흠 연정화 염은희 염정원 오성남 오성예 오소연 오제영 오흥금 오흥수
용애중 용영욱 우혜진 원병열 원선미 원예슬 원유미 원화숙 원희정 유 근 유나예 유동열 유병준 유성현 유영재 유용균 유재란
유점선 유정순 유정희 유희자 윤금숙 윤기춘 윤명숙 윤서경 윤성자 윤애자 윤영기 윤은미 윤은옥 윤정녀 윤정희 윤학병 윤흥묵
이가현 이광재 이광필 이규현 이기환 이동현 이명숙 이명순 이무식 이문희 이미숙 이미영 이병림 이병일 이병철 이봉연 이선임
이성도 이성숙 이소영 이숙희 이순자 이승희 이연숙 이연화 이연희 이영규 이영순 이영윤 이영준 이영진 이옥순 이완래 이용숙
이원일 이윤규 이윤주 이은경 이인숙 이재곤 이재선 이정미 이정옥 이종완 이종헌 이주영 이지영 이지은 이진주 이창주 이천희
이춘선 이충훈 이태우 이하경 이한수 이현석 이현아 이혜란 이혜옥 이효민 이희화 임덕수 임미화 임소희 임순희 임쌍용 임윤희
임인숙 임재철 임청용 장경수 장기영 장동자 장소영 장준용 장지원 장진순 장창순 전수진 전윤배 전정희 정계지 정국환 정규시
정금옥 정명옥 정복례 정복희 정선문 정성옥 정우진 정유빈 정은순 정은주 정은하 정인선 정인숙 정인순 정재인 정종승 정주향
정지혜 정진호 정치웅 정현우 조경대 조경자 조남진 조돈산 조상균 조성경 조소현 조양숙 조영순 조영자 조원순 조은비 조정섭
조정일 조종현 조진경 조현옥 주명호 주신자 지영필 지운용 지윤성 지정훈 차유진 차재옥 채재관 천향호 최광우 최귀숙 최돈식
최동규 최명기 최문수 최미정 최미혜 최민기 최민희 최선이 최선혜 최선희 최성현 최순희 최승경 최승태 최승화 최연화 최영순
최영희 최예샘 최옥순 최윤영 최은숙 최은순 최인숙 최재중 최정락 최종대 최종인 탁광희 피종호 하원자 하윤옥 하은희 한명수
한성우 한순득 한원순 한정순 한정연 한희현 함서현 허순영 허 엽 허인영 허정자 현연희 현재용 홍기수 홍순복 홍영숙 홍은숙
홍의표 홍인숙 홍춘애 홍택기 홍혜림 황금심 황기현 황병찬 황은주 황정숙 황태흠

후원교회

감리교회 강변제일교회 강원침례교회 거성침례교회 그말씀양문교회 금산교회
나눔성결교회 동신장로교회 밝은빛장로교회 사랑의교회 사암성결교회 새춘천교회
석사감리교회 소양성결교회 소양제일교회 순복음열린교회 순복음제일교회 순복음조은교회
순복음춘천교회 신북교회 신성감리교회 아미교회 임마누엘교회 엠마오교회
여의도순복음춘천교회 예사랑교회 예수촌교회 옥산포침례교회 온누리교회 우두감리교회
주의숲교회 주찬양교회 주향장로교회 축복교회 춘천광명교회 춘천광염교회
춘천그리스도의교회 춘천명성교회 춘천동부교회 춘천예담교회 춘천우리교회 춘천은평교회
춘천은혜교회 춘천일신교회 춘천중앙성결교회 춘천제일교회 춘천제일장로교회 춘천침례교회
춘천평화교회 하늘평안교회 한빛교회 한울섬김교회 혈동교회 화목교회
후평제일교회 춘천광장교회 산솔교회 산천무지개교회 제자감리교회 하늘기쁨교회
성광교회 쉼이있는교회 암스트롱병원교회 춘천효자감리교회 효신교회 초대교회

후원기관 및 사업체

JDM 건강한사회를위한시민연대 매일관광 베드로선교센터 설곡산기도원 아가갤러리 영광한의원 월드비전 춘천CBMC 춘천와이신협
칠락의 기쁨 행복재가요양기관 ▶명단(단체)에 누락이나 착오가 있을 수 있으니 연락주시면 수정하겠습니다.

T.033)256-1260 H.010-9698-2993 / 후원계좌번호 : 신협 131-005-937566(춘천성시화운동본부)

창간 1998년 9월 15일 **발행인** 이사장 이수형 **편집장** 최상도, 이관형 **편집위원** 이연희, 이영규, 김춘배, 정숙현, 김진솔
편집 · 발행 춘천성시화운동본부 **주소** 강원도 춘천시 서면 금산리 1019 **문의** (033) 256-1260 **팩스** (033) 257-1260
메일 holycc1972@daum.net

*본 매거진은 간행물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과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본 매거진에 실린 글, 사진, 그림 등 모든 콘텐츠의 저작권은 드림애드에 있으며 허락없이 본 매거진의 콘텐츠를 임의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무단전재나 복사는 불법이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춘천실내체육관(1972. 7. 31 – 8. 4)

춘천 성시화운동

Chuncheon Holy City Movement

춘천성시화운동은 1972년 7월 31일부터 8월 4일까지 당시 인구 10만 명, 33여개 교회의 춘천에서 '춘천 성시화운동 전도대회'를 개최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춘천성시화운동 50주년 희년대성회"

- 8월 13일(토)~15일(월), 오후 7:00 • 공지천 야외공연장, 춘천중앙감리교회
- 말씀 : 박성민 목사(CCC 대표), 이수훈 목사(당진동일교회), 권오서 목사(춘천중앙감리교회 원로)

성시 투어, 성시 지도자 포럼

- 8월 15일(월), 오전 10:00~오후 5:00 • 춘천 성지코스 투어, 순복음춘천교회
- 말씀 : 윤수길 목사(1972년 춘천CCC 간사), 김상복 목사(할렐루야교회 원로)

춘천 리조이스 힐링 페스티벌

- 8월 14일(주일), 오후 5:00~오후 7:00 • 공지천 야외공연장
- 출연 : 장민호(미스터트롯), 필그림 앙상블, K 타이거즈(태권도 퍼포먼스)

"문화유산 발굴을 위한 춘천기독교 120년사" 학술대회

- 문화유산 발굴을 위한 춘천기독교 120년사 학술대회를 개최 합니다. 춘천의 근현대사를 비롯한 주목할 만한 기독교 활동에 대한 발표가 진행됩니다. (협력 : 춘천 한림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 일시 : 9월 27일(화), 오후 1:00 • 한림대학교 국제회의실

"포럼C"

- 춘천성시화운동 50주년을 맞이하여 도시 복음에 관련된 강의와 성시화운동 연구 발표, 미래 비전 발표가 진행됩니다. (협력 : 강원CBS, 성시연구소, 성시포럼)
- 일시 : 9월 29일(목), 오전 10:00~오후 4:00